

복식에 표현된 미적 개념으로서의 엘레강스

고 현 진*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Elegance Expressed on Dress as an Aesthetic Concept

Hyun-Zin Ko* · Min-Ja Kim⁺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2. 16 투고)

ABSTRACT

Elegance in dress has existed as one of the important archetypes of aesthetic consciousness through the times. Nevertheless, there has generally been ignored the idea of analyzing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ramework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eauty of dress by constructing the concept of elegance in dress as both one of aesthetic categories in dress and refined taste in the sociocultural contexts. For the purpose, the documentary study in sociocultural and aesthetic contexts has been executed.

Considering from the holistic viewpoint, elegance in dress is based upon the idea of aristocratic taste cultivated by good breeding. It is expressed visually through not only the carefully contrived dress but also a sort of aura of dressed body - a combination of appearance, behavior, attitude, manner etc.- with skillful ease.

The aesthetic values of elegance consist of luxury, nobility, refinement, femininity, harmony. Luxury means rarity and opulence of materials, craftsmanship for excellent qualities, genuineness. Nobility, related to the lady and the gentleman, can be explained as neatness, decency, modesty, and appropriateness for formal occasions. Refinement involves artifice, sophistication, maturity, and subtleness. Femininity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feminine attractiveness such as the dainty, the florid, the sweet. Harmony means organic unity, matching with body, moderation in opposition to exaggeration. These values has rather interactivity than exclusion. It is refinement and harmony that are centered on of all values.

Key words : elegance(엘레강스), luxury(사치성), nobility(품위성), refinement(세련성),
femininity(여성성), harmony(조화성)

I. 서론

복식의 역사를 통해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그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현대인에게 있어 성공을 위한 옷차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옷차림, 혹은 우아한 옷차림이든 간에,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잘 차려입은 옷차림은 대부분 착용자의 정제된 선택 과정의 산물이다. 특히 세련되고 우아한 미로서 엘레강스의 추구는 오랫동안 복식 양식의 주제이자 목표로 존재해왔다.

엘레강스는 ‘외모, 매너, 복장에 있어 좋은 혼육(well-breeding)에 의해 정제, 세련되어진 고급의 좋은 취향(good taste)’의 의미로 정의 내려지며¹⁾ Nuzzi²⁾가 “본래 과거의 패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의 우스꽝스러워지지만, 전 시기에 걸쳐 엘레강스와 일치하는 패션은 항상 아름답다.”라고 지적했듯이, 이는 영속적인 미적 가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강스는 정확한 개념의 구축 없이 감각적인 언어 체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비평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³⁾이다. 현재까지 엘레강스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우선 복식미의 범주 중 하나로서 엘레강스를 다루고 있는 복식미학 영역의 논의들이 있다. 이들 중 미학에서 논의되어온 미적 범주의 틀을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⁴⁾는 별로 없고 복식미 영역에서의 특수한 미적 범주로서 쉬크(chic), 덴디즘 등의 제한된 개념의 틀 안에서 엘레강스를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⁵⁾⁶⁾⁷⁾ 그 외에 복식의 이미지, 감성 용어의 하나로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거나 ‘우아하게 옷 잘 입는 법’에 관한 실생활의 지침서들에서 그 담론들이 발견되는 정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급의 좋은 취향, 복식미의 하나로서 복식에 나타난 엘레강스 개념을 보다 총체적 관점으로 고찰하고, 그 미적 가치를 분석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어온 엘레강스 개념과 그 사회, 문화적 구조 내에서의 의미 파악을 통해 복식에 표현된 복식미 현상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에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취향을 다루고 있는 미학, 사회학 담론

들, 미학, 예술에서의 미적 특성, 범주에 관한 텍스트, 복식 미학 및 복식사를 다룬 복식 관련 서적, 선행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위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엘레강스의 일반적 개념

1. 엘레강스의 용어적 정의

엘레강스의 일반적 개념 조명을 위해 Webster사전과 Oxford사전, Empas, Yahoo사전을 통해 그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엘레강스’⁸⁾는 기교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선택하다(elegere)’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로, 초기에는 정교한, 까다로운(fastidious), 멋 부리는(foppish)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러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용어 정의에는 1)복장, 디자인, 장식에서 풍부한 취향으로 장식하다(ornate), 멋 부리다, 2)외모나 매너 혹은 기교, 문명의 결과로서, 형식, 움직임에 있어 좋은 혼육, 좋은 취향을 표현하는 어색함이 없는 세련된 우아, 3)세련되고 다듬어진(polished) 섬세한 취향, 매너를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품위 있고 예절바름 그리고 4)최상등급의, 고급, 고품질의 뛰어난고 좋음이란 뜻과 깔끔함(neatness)⁹⁾, 양식이나 수행에 있어 절제(restraint)에 의한 아름다움, 도회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¹⁰⁾ 그 외에 가구, 식사, 주거 등과 같은 일상에 있어 세련된 사치(refined luxury)라는 뜻과, 미세한 아름다움으로 유쾌하게 만들다는 의미로서 18세기에 특히 강렬함, 거대함을 배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요컨대, 엘레강스는 좋은 혼육, 좋은 취향을 바탕으로 사람의 복장, 외모, 언행, 태도 그리고 예술, 디자인, 일상 등의 대상(對象)에 있어 발현된 세련된 사치, 취향, 매너, 품위를 뜻하며, 이는 결국 고급의 탁월한 아름다움, 섬세하고 미묘한 아름다움으로 기분 좋은 매력, 쾌를 유발하는 것이다.

엘레강스에 포함된 좋은 혼육이라는 의미는 타고난 좋은 환경을 암시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기회에 노출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계층적 개념이다. 또 Rei

d¹¹⁾가 좋은 훈육과 좋은 취향은 동일한 것이라고 했듯이, 정교하게 훈련된 좋은 취향 역시 교육의 기회를 통한 미적 경험과 관련되었으므로 좋은 훈육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선점권을 지닌 소수 상류계층의 영역으로 배타성을 갖고 있다.

한편 엘레강스의 정의에 빈번하게 언급되는 ‘세련’이란 원래 금속에서 불순물을 정제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여, 보다 완벽하고 순수한 상태, 무례하고 거칠거나 저속함이 없는 것, 그 결과 까다롭고 섬세하고 우아함, 교양 있고 문명화(cultivated)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련의 개념을 염두에 둘 때 엘레강스에 있어 미의 개념은 지식의 문제로서 연구, 경험되고 이해되는 것을 뜻하며 엘레강스의 추구는 끊임없는 지적 탐구와 노력(endeavor)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엘레강스는 연구된 성숙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이며 인공적인 숙달된 기교,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엘레강스는 미와 유사한 일종의 조화로, 미가 천부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비해 이는 기교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했던 Dariaux¹²⁾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엘레강스에 관한 여러 담론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엘레강스를 조화로 보는 것이다. Lincourt의 건축에서의 엘레강스는 어떠한 디자인 과정이나 창조적인 작업에서 ‘탁월함(excellence)과 장려함(magnificence)의 공존’으로 정의되는데¹³⁾ 여기서 탁월함은 품질 평가의 차원이고, 장려함은 미 개념의 평가 차원으로 취향과 관련된다. 그의 미의 개념에 있어 좋은 취향의 기준은 조화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는 전체와 부분의 적절한 균형 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대한 적절한 건축적 반응을 포함한다.¹⁴⁾

2. 취향으로서의 엘레강스

앞서 고찰된 엘레강스의 일반적 정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엘레강스 안에는 좋은 훈육에 의한 좋은 취향의 개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엘레강스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좋은 취향으로서 엘레강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엘레강스 개념의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취향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서술되곤 한다. 취향 논의의 기원은 Aristotle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판단과 지혜의 기초로서 ‘감각’을 중시했다.¹⁵⁾ 그는 시각 뿐 아니라 촉각(touch)으로서 미각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것을 취향의 기초로서 생각했는데, 이는 인간이 혀가 감각하는 것을 통해 맛을 감별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Aristotle의 취향 개념은 17세기 매너리스트들¹⁶⁾에 의해서도 비평적 미학용어로서 자주 사용되었다. 그 중 Gracian이 취향을 ‘날카로움(acuteness)’이란 개념에 연관시킴에 따라, 취향의 다양성은 비평가, 즉 장차 감별가(connoisseur)라고 불릴 전문가의 등장을 예기하게 되었다. 감별가 취향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검증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배양되고 세련된 것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이다.

감각이 비평용어로서 사용된다는 것은 차츰 규범적인 판단의 수반을 의미하게 되었다.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 찬양되거나 비난받는 방식을 띄게 됨에 따라 도덕성과 미적 감수성은 근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취향은 본질적으로 미, 도덕의 범주를 맴도는 개념이 되었고 ‘도덕적인 사람은 그의 행동이나 그의 외모에서 좋은 취향을 보여 준다’는 인식하에, 점잖은 행동, 복식은 모두 한 개인의 도덕, 미적 가치 혹은 좋은 취향의 지표들이 되었다¹⁷⁾. 이와 더불어 Williams¹⁸⁾의 “소수의 엘리트주의적 개념인 좋은 취향은 일반적인 세련의 속성과 결부되었고, 또 규칙 혹은 다른 면에서는 매너라고 하는 개념에 의미심장하게 결부되었다.”라는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취향의 개념에 매너라는 의미가 결합되게 되었다. 또, 좋은 취향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 학습의 결과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취향에 소속했다는 것은 적어도 교양이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 지위를 소유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좋은 취향에 대한 논의로서 의복, 음식, 주거 등과 같은 일상용품의 대상에 있어 전체 사회에서의 취향의 지도를 작성하고자 했던 Bourdieu의 취향 연구가 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취향을 반영하는 한 개인의 아비투스¹⁹⁾, 라이프스타

일에 따른 문화적 실체는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혹은 교육체계를 통해 습득되며 계층적 속성을 반영한다. 계층 사회에서 눈에 띄게 구별되고 가장 특권적인 좋은 취향과 문화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류 계층의 선점물이어왔다.

즉 Bourdieu의 취향 개념은 취향이 계층의 지표로서 구별 짓기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분석 중 음식에 대한 것은 이를 명백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은 의복이나 다른 다양한 일상 미학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인다.

먼저 대중적 취향²⁰⁾은 값싸고 거칠고 조잡한 하품(下品)으로 남성, 살찐 육체를 연상시키는 무겁고 기름진 거친 음식 군을 형성하며, 이는 기탄없는 솔직함, 육체적, 노골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노력의 절약과 격식의 배제의 특징을 지닌다. 대중미학은 안이한 연루나 통속적인 향유를 거부하는 귀족적 태도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이에 반해 귀족적²¹⁾ 취향은 고가의 진귀한 제품을 풍부히 사용하는 전통적 요리 군을 선호하는데, 이는 여성적, 귀족적이며 가볍고 섬세, 세련된 것으로 엄격한 자기관리, 구속, 제한을 보인다. Bourdieu는 대중적이고 거리낌 없는 솔직한 식사에 귀족적 형식을 갖춘 식사를 대립시킨다.²²⁾ 여기에는 엄격한 규칙, 청결, 질서, 예절 바른 행동, 절도의 아비투스²³⁾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귀족적 취향²³⁾은 모든 실천의 미학화의 특징을 지닌다. 심미적 형식주의가 강요되면서 부드럽고 간접적이며 비가시적인 검열과 같은 관습의 구조화를 통해 식사를 사회적 의식, 엄격한 예의, 미적 세련됨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만들면서 본질적으로 일반인과는 공통된 소비를 부인하고 차별을 나타낸다. 음식의 조리법, 요리 순서, 식사의 규칙, 예술작품처럼 형과 색이 고려된 테이블 세트, 각종 태도와 몸가짐, 에티켓, 음식 씹는 행위의 육체적 표현이나 서두름 같은 식사의 쾌락에 대한 검열,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되는 소비대상의 세련됨 등과 같은 양식화의 모든 수단은 실체나 기능으로부터 형식과 방식으로 강조점을 옮기게 만든다. 이를 통해 즉각적 만족을 탐닉하는 사람들의 비천한 물질적 저속함을 거부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귀족적 취향은 상류계층적 좋은 취향의 의미를 근원에 두고 있는 개념으로 엘레강스와 연관된다. 앞서 고찰한바 귀족적 취향은 거칠고 조잡함, 저속한 동물적 본능, 물질적 필요와 거리를 둔 세련된 사치 취향으로 고가, 진귀한 제품을 풍부히 사용하는 사치와 모든 실천의 미학화 그리고 그에 따른 귀족적 품위의 에토스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거칠고 직접적인 대중적 취향과는 달리 완곡함을 갖는 현학적 쾌락, 가진 자의 우월함을 반영하는 상류계층적 미학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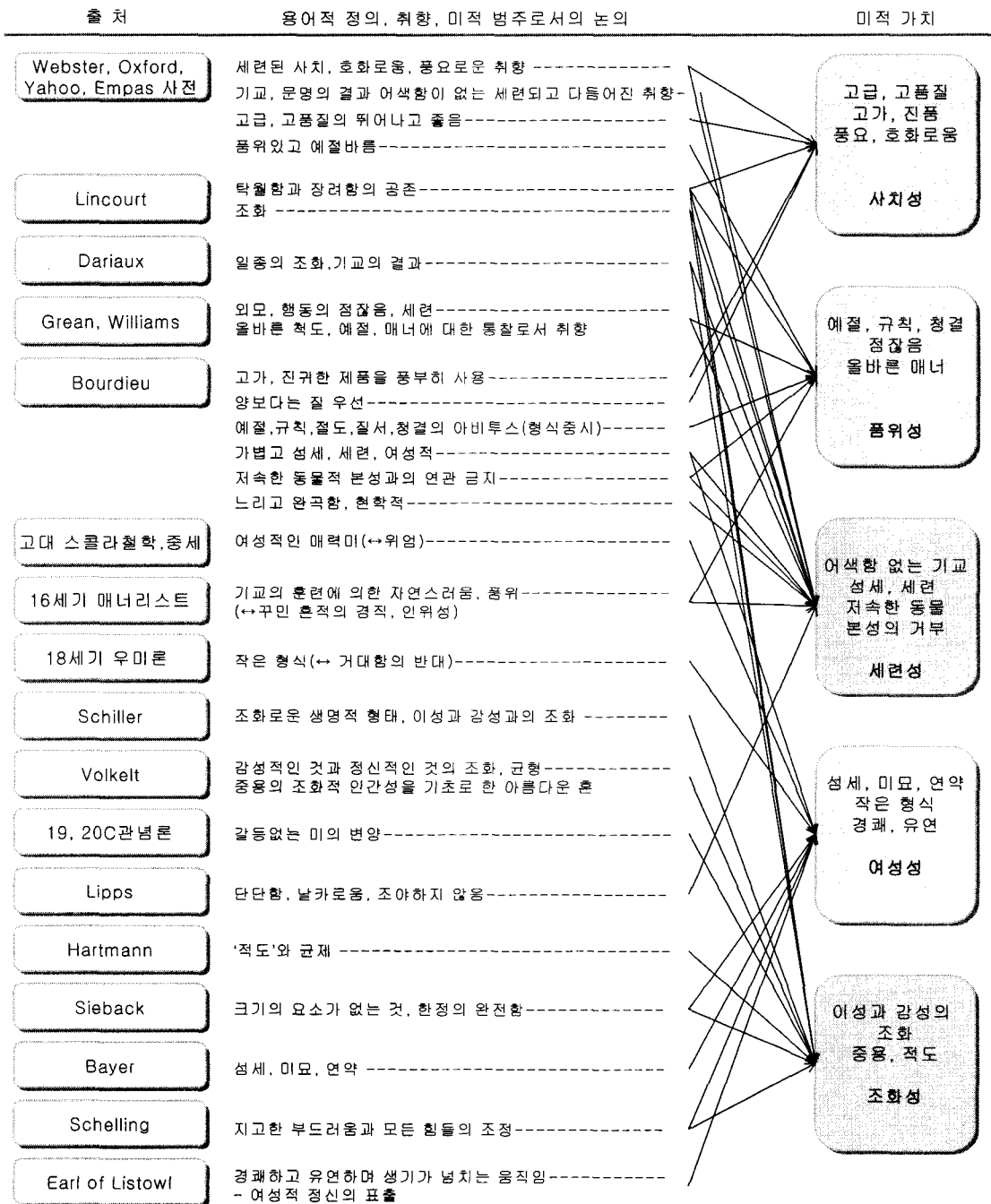
3. 미적 범주로서의 엘레강스

18세기 미학에서의 미적 범주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이전에 엘레강스는 미적 특성 중 하나로서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²⁴⁾ 고대 스킨라 철학자들은 매력과 우미에 베누스타스(venustas)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적인 미로, 위엄을 나타내는 남성적인 미, 디그니타스(dignitas)와 구별되었다.²⁵⁾

이후 우미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변화하였는데, 16세기에는 그라티아(gratia)를 특별히 찬양하여 체계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6세기에 우미는 기교의 훈련에 의해 연출된 자연스럽고 품위있는 행동과 외모로 주장되었고 그 반대는 꾸민 듯한 흔적이 보이는 경직과 인위성이었다.

18세기 미학에 있어 우미는 ‘승고’와 비견할 만한 중요한 미적 범주로 승격했다. 18세기에 우미가 특히 잘 구현된 것은 Watteau의 그림들이었는데, 그때의 우미의 반대는 준엄함이었고, 우미와 거대함은 서로 대립되었다.²⁶⁾

18세기에 우미론의 토대를 구축한 사람은 Schiller였다. 그는 이성과 감성의 완전한 조화인 ‘아름다운 혼’이 지닌 현상의 표출로의 개념으로 우미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Schiller²⁷⁾에 의하면 인간성의 바탕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충동인 형식 충동과 실질 충동이 있다. 형식 충동은 인격, 자유, 이성적 통일로 향하는 충동이며, 실질 충동은 감각, 성정, 욕망으로 향하는 충동인데, 이 두 가지 충동을 조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끄는 특수한 충동이 유희충동이다. 이러한 유희 충동이 향하려는 곳은 이 둘을 조화



<그림 1>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

한 생명적 형태 즉 초감성적 인격의 감성적 표현, 이 역시 인간에게서 감성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조화, 성과 감성과의 조화이고 이는 곧 우미이다. Volkelt 균형에서 생기는 미, 중용의 조화적 인간성을 기초로

한 아름다운 혼으로서 우미를 설명했다.²⁸⁾

19세기와 20세기의 후기 관념론적 미학에서 우미는 ‘갈등 없는 미의 변양’으로서 파악되었고²⁹⁾ 이는 표출과 형성 사이에 모순을 지닌 갈등을 통해 쾌를 이루어내는 숭고와 대비되는 미적 범주로 설명되었다. Hartmann³⁰⁾에 의하면 우아한 것은 그 형식에 있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도(適度)’에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점에서 압도적으로 위대한 것, ‘과도(過度)’에 근거를 둔 숭고미와 날카롭게 대립한다고 했다. Sieback³¹⁾ 역시 숭고의 특질인 크기의 요소가 없는 것, 숭고의 물한계성에 대한 한정의 완전함을 우미의 본질로 보았다. 숭고한 것이 가진 ‘강대’한 측면에 비해 우아한 것은 극히 ‘미약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므로 Bayer는 우아미의 근본 조건으로서 섬세, 미묘, 연약의 성질 등을 들고 있다³²⁾.

한편 우미는 부드러움, 유연하고 섬세한 곡선 등의 특성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Lipps³³⁾는 우미는 단단함, 날카로움, 조야한 성질을 띠지 않는다고 했으며 Schelling은 우미를 ‘지고한 부드러움과 모든 힘들의 조정’으로 정의 내렸다.³⁴⁾ 우미는 부드러운 움직임이나 사행선과 결합되어 설명된다. Earl of Liston³⁵⁾은 우미는 미의 변용으로 일반적으로 섬세한 곡선이 적용되며 Raphael의 인물화나 18세기 건축, 장식미술 등에서 잘 나타난다. 우아한 움직임은 경쾌하고 유연하며 생기에 넘친다. 이러한 우미는 주로 여성에서 볼 수 있으며 여성적 정신의 표출이다.³⁶⁾

이러한 미학적 관념들은 기교의 세련미 그리고 조화의 미로서, 혹은 섬세, 연약, 부드러움, 경쾌함의 성격을 갖는 여성적인 매력미로서의 우미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미의 매력은 내용이 현상화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규칙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모호하게 정의 내려져 있기는 하나, 여러 미학자들에게 사랑스러우며 마음을 움직이고 즐겁게 하는 아름다움으로서, 규칙을 갖는 협의의 미와는 다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요컨대 미학에서의 미적 범주의 하나로서 우미라는 용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엘레강스의 개념은 기교의 훈련에 의해 연출된 자연스럽고 품위있는 세련미 그리고 여성적인 매력미, 중용, 이성과 감성의 완전

한 조화인 ‘아름다운 혼’이 지닌 현상의 표출로서의 조화의미를 의미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엘레강스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 취향으로서 사회, 문화적 접근, 미적 범주로서의 미학적 관점을 종합해볼 때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는 다음의 <그림 1>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세련성과 조화성은 특히 사치성, 품위성, 여성성을 나타내는 내용들과 공유하는 영역이 많았으므로 이들이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III. 복식에서의 엘레강스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장을 본다는 것은 복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식을 착용한 신체 즉 얼굴 표정, 신체적 제스처, 태도 등 각종 신체적인 언어, 그 함축적 의미를 더불어 바라본다는 의미에서이다. 복식을 착용한 신체의 운용 방식은 일종의 테크닉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테크닉을 통해 사회적 페르소나(persona)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페르소나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말씨 및 차림새, 안목 등은 Bourdieu의 지적과 같이 결코 생동적인 것이 아니며 아주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체현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계층의 상징물이 된다.³⁷⁾

Fuchs³⁸⁾가 언급했듯이 복식은 계층 구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였다. 상류계층의 복식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노동과는 무관한 무위적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전 및 초기 자본주의의 모든 문화에 깃들어 있는 다음과 같은 감정, 즉 돈을 쓰는 행위는 고귀한 사람에게 어울리지만 돈을 버는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감정³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 귀족적 무위에 관한 개념은 Balzac의 사고에도 잘 나타난다. Balzac은 ‘우아한 삶에 관한 논문’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우아할 수 없다.”고 하며, 노동이 배제된 무위의 삶을 엘레강스와 연결시켰다.⁴⁰⁾

노동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여가와 맞물려 왔다. 노동의 배제라는 상징적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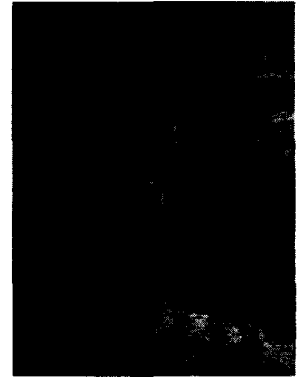
류의 여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 유한 계층이 생산적 노동에서 면제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이는 관조적 여가문화 즉 준 예술적, 준 학문적인 수행, 기타 각종 고급 스포츠 등을 위해 투자되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력 아울러 그를 통한 피지배계층에 대한 사회적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⁴¹⁾

Veblen에 따르면 경제력과 시간의 여유를 의미하는 여가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신하고 복장을 갖추 줄 아는 능력과 기교, 친숙성 등을 보이는 세련된 취향, 매너, 습관 등은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며, 품격에 관한 증거로 작용한다.⁴²⁾ 따라서 정통적인 행동양식, 의복과 몸가짐, 어투 등 여러 행동 양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의 공인된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양식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정통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접촉, 학습에 따른 오래된 친숙함, 탁월함의 시금석이기도 한 편안함, 여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식에 있어 진정으로 우아한 스타일은 세련된 의복과 더불어 지위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귀족적 여유와 에토스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말투, 음성, 몸짓 등의 신체 운용의 테크닉에 의해 완성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식 뿐 아니라 각종 신체 운용의 테크닉을 포함한 한 개인의 전체적인 아우라(aura)로서 엘레강스 개념과⁴³⁾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편안함, 즉 완전히 소화된 기교에서 비롯된 능숙함의 개념이다. Boyer⁴⁴⁾는 엘레강스란 다양하게 정의되는 단어이지만 항상 '능숙한 편안함(skillful ease)'을 갖고 행해진 것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했으며 Eicher 역시 이를 노력의 의미를 가진 지적인 친숙성(intelligent familiarity)으로부터 개발된 특성으로 보았다.

복식 행동은 기타 어느 부분의 소비보다도 구별을 위한 공인된 경제적 지출과 시간의 투자를 뚜렷이 나타낸다. 이러한 목적이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복식이 비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패션이며, 스타일과 디테일에 있어서 입는 사람이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유한 계층의 일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야 했다⁴⁵⁾. 옷을 더럽힐 일을 하지 않

음을 상징하는 연한 색의, 행동에 제한을 주는 복장을 한 Tissot의 우아한 커플의 그림은 이를 잘 반영한다.⁴⁶⁾
<그림 2>



<그림 2> 과시적 여가,
Tissot의 우아한 커플
(McDowell, C., op. cit., p. 42)

또한 복식에 대단한 격식과 극도의 화려함이 함께 나타났고, 모든 경우에 적합한 의복을 입는 것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매우 정교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복장을 정해진 예법에 맞추어 처리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공들인 노력의 산물로 치장(治裝)과 연관된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엘레강스는 캐주얼의 반대되는 의미⁴⁷⁾로 설명되곤 한다.

요약해보면 복식에서 엘레강스는 상류계층의 육체노동으로부터 자유, 여가를 바탕으로 한 아비투스, 라이프스타일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학습에 근거한 숙달되고 친숙한 기교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는 미를 뜻한다. 이는 복식 뿐 아니라 복식을 착용한 신체 즉 언행, 태도 등 각종 신체적인 언어를 포함한 총체적인 아우라에 있어 세련화, 미학화, 양식화된 치장으로서 가시적으로 구현된다.

이렇게 외적으로 구현되는 복식에서의 엘레강스에 있어, 내적 의미로서 앞서 파악된 미적 가치를 복식의 특수성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1. 사치성(luxury)

사치⁴⁸⁾란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소비이다. 이는 풍성한, 값비싼, 세련된 등으로 해석되며 유쾌한 즐거움, 안락감을 불러일으킨다. 사치의 개념에는 양적 혹은 질적인 풍요로움(opulence)의 두 가지 개념과 그에 수반된 고가성(高價性)이 포함되어 있다. 사치에 있어 특히 질적인 측면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사치의 세련화 개념이다.

사치의 세련화⁴⁹⁾란 필요한 목적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재화의 모든 끝손질이다. 여기서 세련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재료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형태의 방향이다. 이는 회귀하고 진귀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표면, 구조에 있어 사치와 연결해서 점점 물질 재화를 많이 쓰는 사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즉 한 물질 재화를 만들어 낼 때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을 더 많이 소모하는 것, 다시 말해 더 많은 노동이 재료에 침투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훌륭하게 수행되고 말끔하게 완수된 작업에 대해서 사용되는 '정성들인(soigne)'과 같은 단어⁵⁰⁾가 연상되는 장인정신(craftsmanship)과 그 결과 수반된 고가의 완성도를 갖는 탁월한 품질을 의미한다.

복식에서 사치는 필요로부터의 거리를 가진 고가성을 전제로 하여, 고급 소재, 값비싼 보석 등 개인의 지위를 보여주는 지위 상징이나 미를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장식 그리고 탁월한 품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말끔하게 완성된 작업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⁵¹⁾ 복식에 있어서 품질은 탁월함의 조건으로 수준 높은 디자인, 원단, 봉제처리를 뜻하며 평범함을 거부하는 작업이나 서비스로, 완성도를 향한 노력의 개념을 포함한다.

고가의 세련되고 탁월한 품질, 회귀함,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치는 우선적으로 여유있는(leisured) 계층을 암시하는 개념 즉 귀족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귀족적 사치의 고귀한 품위에 대한 요구는 모조가 아닌 진품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2. 품위성(n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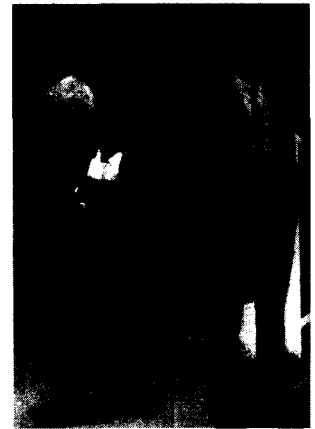
귀족적인 것, 교양인다운 것이 상류 계층의 품위를 나타낸다. 품위는 통속성과 안이함에 대한 거부를 함축하고 있고 고결한 품행과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예의범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⁵²⁾ 이는 좋은 품행, 예의범절, 매너를 갖춘 신사도와 상류계층의 숙녀다움과 관련된다.

신사⁵³⁾는 도덕적 측면에서 항상 철저히 예법에 맞고(decent) 겸손하며 직관적으로 올바르게 처신하며, 좋은 재단과 품질의 자신의 옷을 맵시 있고 흠없게

입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외모 또한 고려한다. 자기 절제를 통한 점잖고 품위 있는 신사의 외모, 복식, 귀족적 태도 등은 기교의 완숙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세련됨의 표시로 계층적 배타성, 우월성을 갖는다.

상류계층의 숙녀들 역시 예절 바르고 정숙함, 아울러 격식(formality)에 맞추어 제대로 단장하는 것을 품위로 보았다. 그들은 미의 가치와 아름다워지려는 세련의 노력의 가치를 믿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단정치 못한 태도'로 보았으며, 미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결합시켰기 때문에 도덕적, 미적인 미덕 모두에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꼈다.⁵⁴⁾

특히 몸단장(grooming)에 있어 단아함(neatness), 잘 정돈된(orderly) 단정성은 전통적으로 품위 있고 우아한 것과 연결되어 생각되어 왔다.⁵⁵⁾ 청결, 깔끔한 정리, 윤색(polish)이 결론적으로 우아함을 이끄는 않으나 완벽한 몸단장 없이는 우아함을 얻을 수 없다.⁵⁶⁾ 이는 지속적인 자기통제와 관리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몸단장에 있어 청결(cleanness)의 개념은 중요한 측면인데, 빅토리안 시



<그림 3> 청결, 단정의 우월
(McDowell, C., op. cit. p. 84)

대이래로 청결에 관한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청결한 사람을 좋은 사람들로 여기며, 청결은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삶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생각해왔다.⁵⁷⁾ 대체적으로 패션의상과 액세서리는 많은 시간과 옷차림에 주의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이를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돈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⁵⁸⁾ 이러한 청결함은 품위성을 갖는 동시에 사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깨끗함은 지적 태도와 연관된다. 우리 모두는 깔끔하게 재단되고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땀으로 얼룩진 옷을 입은 남자 보다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3>

단정성 이외에 상류계층적 품위를 지닌 사람들은

좋은 취향, 좋은 매너, 정숙성, 존경할 만한 품성 개발 등의 자기 통제의 사회적 전락과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모든 실천에 있어 언제나 순수하게 심미적인 경향을 나타내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격식으로 잘 나타난다. 상류사회의 삶은 모든 관련 행사를 위한 적절한 옷장을 요구했다.⁵⁹⁾ 특히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러한 각종 행사에 적합한 옷장의 격식이 강화되어, 상류사회의 신사, 숙녀라면 하루에 5~6번 옷을 갈아입을 필요에 직면했으며 가능한 한 좋은 취향의 경계 내에서 멋지게 보여야만 했다. 이는 그들의 품위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격식에의 적절함은 미학적 용어로는 적합성(appropriateness)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의 적합성은 한 인간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인간의 특질에 모아져서 ‘연령, 성별, 시간, 장소 등의 관계 하에 말하고 행하는 것에 적합함’ 즉 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⁶⁰⁾ TPO개념에 적합한 격식에 맞는 옷차림은 엘레강스의 필수요소이여 왔다.

3. 세련성 (refinement)

엘레강스에 있어 핵심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세련성은 문명화(cultivation)와 연결된 개념이다. Elias⁶¹⁾에 따르면 세련 속의 문명화라는 개념은 원래 농업에서 경작하다는 의미의 어원에서 파생되었는데, 점차 심성이나 매너 혹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정제하고 개선하는 것 혹은 교양, 소양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를 통해 얻은 것은 ‘세련된’ 행동양식이지만 동시에 본능적 충동의 억압, ‘자연스런 삶’의 상실이다. 이것이 바로 Elias가 말하고자 했던 ‘문명화의 역설’이다⁶²⁾. 문명화의 역설은 엘레강스의 개념에 있어 인간의 기교를 뜻하는 인공성(artifice)을 암시한다.

문명화의 개념을 기초로 한 기교를 통한 인공성은 Baudelaire의 인공적인 도회성의 개념까지 연결된다. 그는 모든 인공적인 것의 열광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데까지 이른다.⁶³⁾ Baudelaire의 철학에 근거하면, 이른바 자연의 매혹보다 도시의 인공적 생활이 비할 나위 없이 더 매력적이었으므로, 일체의 단순하고 분명한 것, 모든

세련되지 않고 본능적인 것은 가치를 잃고 문화의 의식성, 주지성, 비자연성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엘레강스의 세련성에 내포되어 있는 문명성과 도회성, 그리고 이 둘에 공통된 인공성의 개념은 소피스티케이티드(sophisticated)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 원래 소피스티케이티드는 고도의 지적 교양을 뜻하며 우아, 세련과 동일한 의미⁶⁴⁾로 쓰인다. 여기에도 문명화의 역설에 따른 순진성의 상실이라는 이면적 의미가 수행된다. 패션용어로 사용되는 소피스티케이티드는 세련된 도시적인 취향으로 다듬어진 어른스러움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지극히 문화적인 용어다. 매력의 척도를 고도의 감각으로 다듬어진 세련미에 두고, 도회감각의 성숙된 이미지, 지성미와 교양을 밀도 있게 표현하는 감성을 이렇게 부른다. 다듬어진 기교의 세련됨은 시간을 통한 체득을 필요로 하는 성숙성(maturity)의 개념이다. 따라서 엘레강스의 세련의 개념에는 시간을 통해 완숙해진 기교의 성숙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성숙성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편안해진 품위를 갖고 있으므로 품위성과 연관된다.

한편, 세련을 통한 엘레강스의 개념에는 보다 완벽하고 순수한 상태를 위한 기교의 정제 결과 까다롭고 섬세한 정묘성(subtleness)이 포함된다. 이러한 뜻의 정묘는 미적 특성으로 미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이는 16세기에 특히 진정한 인기를 얻었는데, 정묘에 대해 Cardano⁶⁵⁾는 “만약 복잡하고 어려운 것에 직면하게 되어 그것을 꿰뚫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서 주는 기쁨은 한층 더 커진다.”고 하며 정묘에 있어 예리한 정신에 의한 현학적 쾌를 강조했다.

요컨대 복식에서 엘레강스의 세련성의 개념은 복식, 매너, 언행 등의 인간의 행동 양식에 있어 문명성, 도회성을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기교를 의미하는 인공성, 시간을 통해 완숙해진 기교의 성숙성, 섬세하고 까다로운 기교의 정묘성을 갖는다.

4. 여성성(femininity)

엘레강스의 세련성에 나타나 있는 기교를 통한 섬세, 미묘한 특성은 앞서 미학적 논의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레강스를 여성적인 매력미로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란 남성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적 특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감응력, 감각의 우수함이라든가 미에 있어 부드러움, 온화함 같은 여성적인 미적 특성은 것을 뜻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이란 특정한 범주화에 대한 서구 문화의 편견은 특수한 방식으로 패션 시스템을 굴절시켰다. 여성에게 부여된 젠더의 각본은 인체가 섬세하고 귀중하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성성의 테크닉은 옷과 외모와 제스처를 통해 획득되고 표현되는 심미적 코드를 따르는 반면, 남성은 인체를 조각하고 사용하도록 학습되므로 남성성의 코드는 움직임의 코드, 특히 스포츠와 경쟁의 코드를 통해 명기된다.⁶⁶⁾ 여기서의 움직임은 앞서 미학적 논의절에서 언급된 엘레강스의 여성적인 곡선적 움직임과는 달리 힘이 부여된 역동적인 것을 말한다.

엘레강스의 여성성의 코드에 따른 움직임은 경쾌하고 유연하며 생기 있는 곡선적인 것으로 섬세하고 유기적인 완곡선, 울동감 있는 곡선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생기를 불어넣는 리듬이란 요소와 관련된다. 리듬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일시키고 결합하도록 하며 그를 통한 조화를 이끌도록 만든다. 경쾌하고 생기 있는 리듬의 표현은 엘레강스의 생기있는 형태의 조화성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또, Dolce는 『회화문답』⁶⁷⁾에서 Raphael의 유려하고 달콤한 매력미에 대해 우미와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 역시 이러한 여성적 매력미인 엘레강스의 특성을 잘 반영해준다.

5. 조화성(harmony)

복식에서 엘레강스는 생각, 언행, 태도, 복장의 완벽한 조화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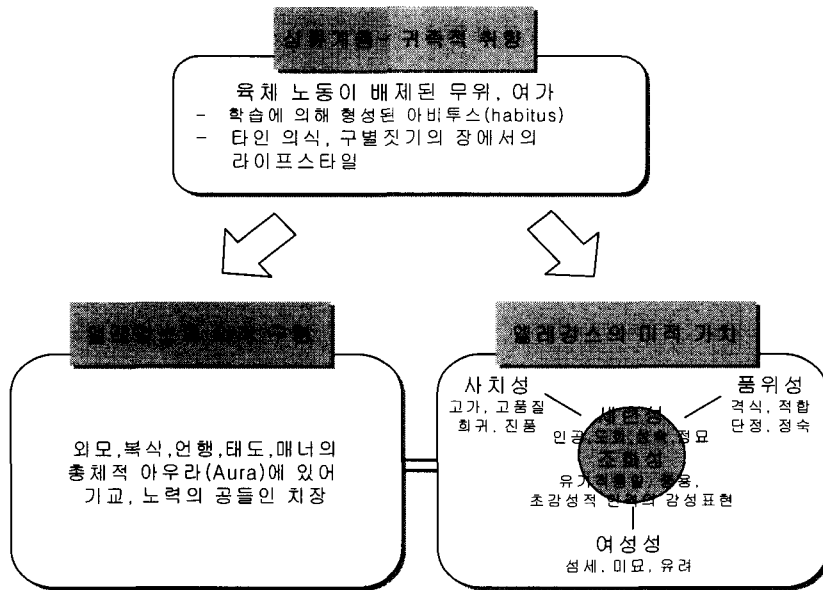
“우아한 스타일이란 사람과 일체됨을 전제로 한다. 일체가 되었을 때 어떤 억제가 있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들였지만 과잉은 아닌, 독창성이 넘치지만 별다르지 않은 스타일이다.⁶⁸⁾”

“우아한 여성은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아한 여성은 단지 구별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서는 안 되고 자기만의 본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 하나의 디테일의 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전체적인 개성이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녀의 각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관련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요소들은 전체 외모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영혼과의 조화된 외모이다.”⁶⁹⁾

이는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 여기에는 엘레강스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기초로 한 중용의 조율, 독창성(originality)을 통한 근근한 구별의 생명력 있는 형태 그리고 작게는 부분들의 조화, 이것이 전체에 유기적으로 이루는 조화, 보다 넓게는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조화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유기적 통일(organic unity)은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통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 특징 중 하나는 총체적인 효과, 즉 각 부분들이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에로 자신들의 가치를 빌려주어 다시 그 전체로부터 가치를 끌어내는 데 있다.⁷⁰⁾ 엘레강스에 있어 조화의 개념은 이러한 유기적 통일의 완성이다. 이는 과도가 아닌 적도의 틀 내에서 생명력 있는 형태, 초감성적 인격의 감성적 표현이다.

복식에서 엘레강스의 상류계층을 전제로 한 외적 구현과 미적 가치의 개념구조는 <그림 4>로 종합된다. 엘레강스는 이 모든 개념이 아우러져 나타나는 복식미인 것이다.

복식의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를 이루고 있는 분류된 각 요인들은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각 요인들끼리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자면 사치성에 있어 진품성은 결과적으로 품위성과 연관이 되며 품위성 역시 저속함이 없는 문명성이라는 면에서 세련성과, 적합성에 있어 조화성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며 단정성, 격식성 등은 사치성을 전제로 가능한 개념이다. 세련성에 있어 성숙성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완숙해진 자연스럽고 편안한 품위와 연관되므로 품위성과 연관된다. 여성성의 섬세하고 미묘함은 세련성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여성적인 섬세하고 유기적인 완곡선, 울동감 있는 곡선은



<그림 4> 엘레강스의 개념구조

생기를 불어넣는 리듬과 관련되는데 경쾌하고 생기 있는 리듬의 표현은 엘레강스의 생명력있는 형태의 조화성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들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지닌다.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는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이들 각각을 예리하게 정의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적가치들의 미묘한 상관관계들을 단순화시키려는 환원주의에로 치우칠 수가 있다. 따라서 통합적 인식 및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나 복식에서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에 있어 중심이 되는 개념은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세련성, 조화성이라 할 수 있다. 사치성은 과시와 쾌락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품위성은 지나친 절제의 금욕으로 치중될 수 있는데, 이 둘의 적절한 조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련성과 조화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성 역시 섬세, 미묘의 세련성과, 한정의 완전함에 있어 조화성의 차원을 고려한 개념이다. 이처럼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에 있어 세련성과 조화성이 핵심적 가치로서의 역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엘레강스가 갖고 다듬는 기교의 미, 조화의 미라는 개념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복식에서의 엘레강스는 상류계층의 육체노동으로부터 자유, 귀족적 무위와 여가를 바탕으로 형성된 아비투스, 라이프스타일을 기본 전제로 한 세련된 귀족적 취향으로 표현된다. 이는 복식뿐 아니라 복식을 착용한 인체 즉 외모, 언행, 태도, 매너 등의 총체적인 아우라에 있어, 세련된 기교에 의한 품위 있고 공들인 치장으로서 가시적으로 구현된다.

복식미의 판단에 있어서 먼저 판단되는 것은 외형적인 면의 구현이나 이와 더불어 내용적 의미의 판단이 요구된다. 내용적 의미의 미적 가치는 복식을 입음으로써 즉, 의복이 인체 혹은 인간과의 공연에 의해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복식에서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는 사치성, 품위성, 세련성, 여성성, 조화성으로 조명되었다.

본 연구 결과 변화하는 상류계층의 좋은 취향, 반드시 법칙에 근거하지 않는 매력을 보이는 일종의 아우라로서 표현되므로, 복식에서의 엘레강스는 하나의 단선화된 가시적 특징을 보이는 스타일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엘레강스에 있어 상류계층적인 취향을 암시하는 고급스런 세련과 조화의 미라는 본질은

분명하며,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에 의해 공론화된 평가를 얻어낸 엘레강스 스타일은 분명히 존재해왔다.

모든 시대가 가지는 보편적인 미의식은 각 시대, 집단의 방법론적 이상과 결합되면서 제각기 다른 양식으로서 외모, 복식 등을 포함한 문화양식을 형성해 내는데, 우아한 스타일 역시 그러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복식사를 통해 저술되어온 엘레강스를 양식사적 관점에서 파악해보는 것은 서양복식의 각 시대별 역사를 통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좋은 취향과 복식미로서 보편적 시대 양식에 표현된 구체적인 엘레강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2nd Ed.), (1989). Oxford : Clarendon Press, p. 733.
- 2) Nuzzi, C. Fashion in Paris: from the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1912~1913 (1980). Thames and Hudson의 Introduction 참조.
- 3) 이는 앞서 서론에서 선행연구들로서 언급했던 바와 같다. 다만 최근 Eicher의 *Elegance in Dress: A Cross-Cultural View* (서울대 특별강연, 2000)에서 Kalabari族과의 비교 문화적 연구의 맥락에서 다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단독적으로 논의된 것이 거의 없다.
- 4) 복식미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미적 범주의 제한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최수현의 선행 연구(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 범주: 르네상스, 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미학에서 사용되어온 미적 범주의 개념을 사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복식미를 고찰하였으나 엘레강스에 관해서 많은 분석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
- 5) 장문호 (1975), *복식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85~186.
- 6) 조규화 (1989),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7) 오현정 (1991), *복식미 범주의 개념구조에 관한 연구: 슈크와 맨디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2).
- 8)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1). Springfield : G & C Merriam Company.
- 9) *ibid.*
- 10)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loc. cit.
- 11) Reid, T. Taste and the fine arts, Thomas Reid's Lectures on the fine arts, 원본 복사 Kivey, P.(1973).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History of Ideas Series Minor 7*, The Hague, p.47을 Cottom, D. (1981). Taste and the civilized imagina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9(4), p. 368에서 재인용.
- 12) Dariaux, G. A. (1964). *Elegance: A complete guide for every woman who wants to be well and properly dressed on all occasion*, NY : Doubleday & Company, p. xii.
- 13) Lincourt, M. (1999). *In search of elegance: Towards an architecture of satisfaction*,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p. 5. 여기서의 장려함은 뛰어난 아름다움이란 뜻으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 14) *ibid.*, pp. 118~119.
- 15) Townsend, D. (1998). Taste: Early history. *Encyclopedia of Aesthetics*, Vol. 4. NY: Oxford University Press, p. 355.
- 16) *ibid.*, p. 357.
- 17) Grean, S. (1965). *Shaftesbury's philosophy of religious ethics*, s.1. Ohio University Press를 Gronow, J. (1997). *The sociology of taste*. London, NY: Routledge, p.12에서 재인용.
- 18) Williams, R. (1976). *Keyword*. London, Gontana/Croom Helm, pp. 264~266을 Walker, J. A. (1995). *디자인의 역사*, 정진국(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p. 255에서 재인용.
- 19) 아비투스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사회적 문맥에 의하여 가르쳐진 획득된 성향, 인지와 평가, 행동의 틀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20) Bourdieu, P. (1997).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중철(역), 서울: 새물결, p. 291, p. 26.
- 21) Bourdieu는 현대의 부르주아-프티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관계를 과거의 귀족-부르주아-민중의 관계와 같은 맥락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행복한 소수(happy few)로 감수성의 귀족주의, 본능이 귀족처럼 세련화되어 있는 사람도 의미한다.
- 22) Bourdieu, *op. cit.*, p. 318.
- 23) *ibid.*, p. 319.
- 24) 미학에서는 엘레강스라는 용어보다 우미, 우아, 우아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또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라틴어에 근거한 용어로 서술되고 있으므로-예로 16세기의 그라티아 역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기교의 미로서 우미로 설명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학에서 논의되는 바대로 그대로 설명하겠다.
- 25) Cicero, *De officiis I*, p. 36, p. 130을 Tatarikiewicz, W. (1992).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역), 서울: 미진사, pp. 200~201에서 재인용.
- 26) André, E. M. (1715), *Eaai sur le Beau in Dictionnaire*

- d'Esthétique Chrétienne*, Ed. J.R. Migne (1856)을 *ibid.*, p. 202에서 재인용.
- 27) Schiller (1793). *der Anmut und Würde*을 하재창 (1986). *미학의 제문제*. 원광대 출판부, p. 160에서 재인용.
- 28) Volkelt, J. (1910). *System der Aesthetik*, Bd. 2, S.2 ff, Munchen을 미학사전 (1988). 서울 : 논장, p.392에서 재인용.
- 29) Henkmann, Lotter(공편) (1988). *미학사전*. 김진수 (역). 예경, p. 258.
- 30) Hartmann, N.(1995). *미학*. 전원배(역). 서울 : 을유문화사, pp. 447~448.
- 31) Sieback, H. (1875). *Das Wesen der Aesthetischen Anschauung*을 미학사전. *op. cit.*, p. 393에서 재인용.
- 32) Bayer, R. (1934). *L'Esthetique de la Grace*. Paris, F. Alcan을 하재창, *op. cit.*, p.163에서 재인용.
- 33) Lipps, Th. (1903). *Aesthetik, I*을 하재창, *op. cit.*, p. 393에서 재인용.
- 34) Bayer, R. (1933). *L'esthetique de le grq^ce*, vol.2를 Tatar kiwicz, W. *op. cit.*, p. 202에서 재인용.
- 35) Earl of Listowel (1967). *Modern Aesthetics*. London, pp. 190~191을 하재창, *op. cit.*, p. 159, pp. 163~164에서 재인용.
- 36) 하재창. *op. cit.*, p. 161.
- 37) Bourdieu, P., *op. cit.* p. 20.
- 38) Fuchs, E. *풍속의 역사 II: 색의 시대*. 이기웅, 박종만 (역). 서울: 까치, pp. 52~64.
- 39) Sombart, W. (1997). *사치와 자본주의*. 이상률(역). 서울: 문예출판사, p. 32.
- 40) Steele, V. (1988). *Paris fashion: A cultural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p. 64.
- 41) Bourdieu, P., *op. cit.*, p. 471.
- 42) Gronow, J., *op. cit.*, p. 36.
- 43) Dariaux, Feldon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Dariaux, J., *op.cit.*, Feldon, L. (1982). *Dressing rich: A guide to classic chic for women with more taste than money*. Universe.com, Inc., p.10.)
- 44) Boyer, G. B. (1985). *Elegance: A guide to quality in menswear*. NY, London: W.W. Norton & Company, p. 10을 Eicher, J., *op. cit.*, p. 2에서 재인용.
- 45) Veblen, T. (1995). *한가한 무리들*. 이완재, 최세완(공역). 서울: 동인, pp. 179~181.
- 46) McDowell, C. (1992). *Dressed to kill. Sex Power and Clothes*. Hutchinson, p. 43.
- 47) Eicher, J., *op. cit.*, p. 1.
- 48)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낭비라는 부정적 개념보다는 고급스러움, 호화로움을 뜻하는 개념이다.
- 49) Sombart, W., *op. cit.*, p. 101.
- 50) Bourdieu, P., *op. cit.*, p. 315.
- 51) 김유로 (1999). 1990년대 패션이 나타난 쾌락주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44.
- 52) Bourdieu, P., *op. cit.*, p. 332.
- 53) Roetzel, B. (1999). *Gentleman: A timeless fashion*. Könemann, p. 8.
- 54) Bourdieu, P., *op. cit.*, pp. 332~333.
- 55) Leddy, T. (1995). Everyday surface aesthetic qualities: 'Neat', 'Messy', 'Clean', 'Dirt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3), pp. 262~266.
- 56) Dariaux, J., *op. cit.*, p. 101.
- 57) McDowell, C., *op. cit.*, p. 111, p. 77.
- 58)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75.
- 59) de Marly, D. (1980).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1850~1950*. London: The Anchor Press Ltd., p. 120.
- 60) Tatar kiwicz, W., *op. cit.*, p. 191, p. 193.
- 61) Elias, N. (1995). *문명화 과정 매너의 역사*. 유희수 (역). 서울: 신서원, p. 35.
- 62) *ibid.*, p. 15.
- 63) Baudelaire (1863). *Le Peintre et la vie moderne*. Rayndole, E.(편) (1931). *Baudelaire-L'Art Moderne*, p. 79를 Hauser, A. (1974). *문화와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백낙청, 엄원웅(공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p. 184에서 재인용.
- 64) Empas 사전. 자료출처 <http://dic.empas.com>
- 65) Cardano, G. (1550). *De Subtilitate*. Coll. ed. Lyon, 1663. 10 vols을 Tatar kiwicz, W., *op. cit.*, p. 203에서 재인용.
- 66) Craik, J. (2002). *패션의 얼굴*. 정인희 외(역). 서울: 푸른솔, p. 42.
- 67) Dolce, L. (1542). *Dialogo della Pittura*. Venezia. Trattati d'arte del Cinquecento, a cura di P. Barocchi, *Col.1, Cari. 1960*, pp. 195~196을 岡田溫司 (1999). *르네상스의 미인들*. 오근영(역). 서울: 가람기획, p. 156에서 재인용.
- 68) 落合正勝 (2001). *옷 잘 입는 남자에게 숨겨진 5가지 키워드*. 이유허(역). 서울: 나무와 숲, p. 87.
- 69) Prudhomme, S. (1960). *Journal Intime 1862~1869*. Paris: Les Editions Du Compagnonnage-Editions Rombaldi, p. 158을 Lincourt, M., *op. cit.*, pp. 288~292에서 재인용.
- 70) Rader, M. & Jessup, B. (1992). *예술과 인간가치*. 서울: 이론과 실천, p. 127.